

(나) 요녕성의 인삼 생산

요녕성의 인삼 생산량은 2013년에 1,256톤으로서 동북 3성 전체의 약 4%를 차지하고 있다. 1980년 이후 성 전체의 재배인삼 생산량 변화를 보면 1980년 775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3,720톤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0년 1,218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,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2003년에는 3,001톤까지 증가 하여 2006년까지 약 2,300-2,400톤을 유지되었으며, 2011년 4,393톤으로 증가 하였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현재에는 약 1,200톤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.

그림 13. 요녕성의 연차별 인삼 생산 변화

(다) 흑룡강성 인삼 생산

흑룡강성의 인삼재배는 약 5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5년근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(2-4년근이 많았음), 일부 2015년도에 길림성 연길 만량시장에 4년 근을 출하 하여 80원/kg을 받았다고 한다. 흑룡강성에 인삼재배는 주로 길림성에서 인삼을 재배하였던 농가들이 인삼재배 처너지인 흑룡강성에 와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으며, 흑룡강성에는 아직 인삼 경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주로 길림성의 무송 등 지역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인삼종자의 파종량은 200평(무)당 12kg 정도이며, 종자는 길림성 인삼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가 채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인삼재배는 직파하여 그대로 수확하며, 일부는 파종 2년 후 이식하여 5-6년근을 생산한다. 흑룡강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은 주로 중국삼이며, 서양삼도 일부 재배되고 있는데, 경안현의 경우 1,000ha 중 60ha(약 6.0%)가 서양삼이라고 한다. 토지 임차료는 ha당 8년 사용료가 8만 元이며 인삼밭 재배관리비(경영비)는 ha당 연간 15만 元 정도 소요되고, ha당 총 180만 元을 투자하여 약 100만 元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. 흑룡강성에서 인삼의 파종은 봄 파종(4-5월)과 가을 파종(10월)에 하며 점파를 하며 종자는 길림성 만량시장에서 구입해 오는데 근(500g)당 300~1,000元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고 하며 종자 발아율은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. 토지임차료 ha당 50만 元으로 50년간 임차 하였으며 인삼재배 후 토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, 사용 후에는 임지로 복원해야 한다. 인삼재배 포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인건비는 현재 100~150元인데 농번기에는 150元, 비수기에는 100元이라고 한다. 인삼 1,2년생 포장에서 말라죽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토양에 염류농도가 높은 것이 (EC 1.0 이상으로 측정됨) 원인으로 판단되며, 인삼재배 지역을 여러군데 관찰한 결과 지역 및 농가간 재배관리 수준에 차이가 크고 포장관리가 관리의 청결하게 잘 이루어지는 농가에서는 아직까